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

양 성 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오늘 우리 당은 반제계급교양을 5대교양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것은 그것이 우리 인민의 자주적삶과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의 승패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하면서도 사활적인 문제라는것이다.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삶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를 판가름하는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삶은 그것을 해치고 빼앗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하고 인민들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반혁명적공세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특히 우리의 주적인 미제와 남조선괴뢰들, 일본반동들은 로동당만세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제도와 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저들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과학기술이전만이 아니라 한줌의 비료, 한봉지의 풀씨, 하나의 유희기구마저 제재하고 봉쇄하며 전세계가 공유하는 우주개발권리마저 조선만은 안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미제의 진의도는 조선민족을 통채로 질식시켜 우리 삶의 보금자리를 거대한 불모지로 만들려는 야수적본성의 극악한 발로이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장구한 기간의 포위, 봉쇄와 제재로 우리 조국이 겪는 난관과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한편 미제는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제도와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우리 내부에 반동적인 출판선전물과 썩어빠진 부르쵸아생활양식을 퍼뜨려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을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내고있다.

피를 물고 날뛰는 승냥이무리에게 그 어떤 선의를 기대하거나 양보를 바라는것은 곧 자주적존엄과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청하는 길이다.

계급투쟁에서는 자비나 타협이란 있을수 없으며 무자비한 대결과 비타협적인 투쟁만이 존재한다.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다.

적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는것은 곧 계급의식의 변질을 의미하며 계급의식의 변질은 파멸에로 이어진다. 혁명의 원썬들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자기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켜낼수 없으며 혁명을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

지난 시기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의 붉은기가 내리워지게 된것도 중요하게는 계급투쟁을 포기한것과 관련된다. 계급교양을 소홀히 하고 국가의 독재기능을 약화시킨 결과 사회전반에 전쟁에 대한 공포심과 부르쥬아평화주의가 만연되게 되었으며 적대적요소와 낡은 사상잔재가 되살아나 사람들의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계급진지가 허물어지게 되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민족해방투쟁이 확대되면 전면전쟁으로 변질수 있고 그것이 핵전쟁으로 전환되어 인류가 핵참화를 입게 된다는니, 독립도 좋고 혁명도 좋지만 평화가 더 귀중하다고 하면서 반제투쟁을 거부하였다. 역사적경험은 반제투쟁의 칼날이 무디여지면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망쳐먹게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없는것은 물론 죽음밖에 차례지지 않는다는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땅이 새겨준 피의 교훈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썬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이다. 이런 식인종무리, 살인귀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바라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썬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환상이나 공포심에 포로되면 적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무색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역사와 현실은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야말로 자기의 자주적존엄, 참다운 삶과 행복의 터전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에게 투철한 주적관과 무자비하고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현실적요구이기때문이다.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온갖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을 동반한다.

우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는 곧 제국주의의 멸망과 반동적착취계급의 파멸을 의미한다. 때문에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실현과 자본주의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여기면서 반세기가 훨씬 넘은 지난 수십년간 어느 한시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중단한적이 없었다.

최근 미제는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와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위성발사를 《도발》로, 《위협》으로 강변하면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려는 천하무도한 《참수작전》과 집무실

파괴를 목적으로 한 《정밀타격훈련》, 《평양진격작전》 등 각이한 명칭의 공격작전들이 극도로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실행방식으로 강행된것이다.

지금도 미제는 핵전략폭격비행대와 핵동력항공모함타격집단을 빈번히 들이밀어 매일 매 시각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의도적인 도발로 침략전쟁개시의 구실을 찾고있다.

미제는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온갖 적대시책동을 다 추구해왔으나 정치적으로도 통하지 않고 군사적압력도 물거품이 되게 되자 《인권》소동까지 벌리면서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을 규합하여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까지 조작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인권》소동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려는 미제와 계급적원썹들의 최후발악의 산물이다.

한편 남조선괴뢰들은 미제의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발맞추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뼈라살포놀음에 열을 올리고있다. 온갖 허위와 날조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모독증상하는 적들의 뼈라살포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을 타락변질시키고 자기 위업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는 극악한 심리모략책동이다.

미제와 계급적원썹들이 비렬한 반공화국모략책동을 통하여 노리는 흥심은 자기 수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는데 있다.

현실은 사회주의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기어이 압살하려는 미제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반제반미계급투쟁은 끝날수 없다.

지난 70여년간의 조미대결사와 날로 첨예화되는 오늘의 정세는 미제와 계급적원썹들이야말로 우리와 절대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썹들이며 우리에게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대결광증에 미쳐 최후발악하는 원썹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우리는 반제계급투쟁의 이 철리를 뼈에 새기고 반제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정세가 어떻게 변하건 견결한 반제투쟁정신, 원썹격멸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도록 하여야 한다.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착취와 압박도 모르고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의 전도와 조국의 운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데 달려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썹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면서 자기의 전로정에 백승만을 아로새겨왔으며 년대와 년대를 넘어 오늘은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 들어섰다. 그 과정에 혁명대오안에서는 세대교체가 일어나 착취와 압박도 모르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그 주력으로 등장하였다.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려온 새 세대들은 지난날 나라없고 권리없는 식민지노예 살아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것이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조국을 지키는 싸움이 얼마나 간고한것인가 하는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새 세대들이다.

만일 새 세대들속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썬들의 착취적본성과 악랄성, 잔인성과 교활성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반제계급교양을 순간이나마 소홀히 한다면 그들속에서 자기의 계급적본분과 처지를 잊어버리고 원썬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게 되며 나중에는 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은 물론 자신의 운명도 지켜낼수 없게 될것이다.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은 오늘날 적들의 책동에서 쓰고있는 기본수법이며 여기에서 주되는 대상은 새 세대들이다.

적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을 리용하여 그들을 변질시키려고 온갖 모략을 다 꾸며내고있다.

적들이 《자유아시아》방송을 밤낮으로 불어대고 록화물, 도서 등 불순출판선전물들을 끊임없이 들이치는것은 바로 새 세대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허물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실은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을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으로부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야말로 언제나 중시하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아가야 할 중대사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와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대하고 사활적인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야 할것이다.